

Posco를 보는 눈

—— 全 昌 植 (本誌 논설위원)



력해본다.

찬란하고 웅장한 태양을 맞는 물굽이라고 해서 영일만이라 이름지어 불려왔다는 글자풀이보다는 태고 이전부터 이미 오늘의 발전양상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게 오히려 당연한 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지리상으로 풍요로운 天惠를 입었다해도 그 곳이 오늘에 이른 원인이 이른바 지혜로운 슬기에서 비롯된 강인한 의지가 오늘의 영일만, 그리고 포항제철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탄성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제철소(Posco)의 역사는 모랫바람 날리는 영일만에서 시작된다. 객관적인 거리에서 관광하던 방관자들의 말은 역사의 진행을 기적이나 신화라는 어휘로 아무런 무게없이 예사롭게 표현했다. 그러나 온 체력을 불가마속으로 쏟아 부은 창업역군들은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같은 의지와 고뇌의 전부를 쏟아 붓는 문자 그대로의 剝皮割肉(박피갈육) 그것이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를 타고 난 기적이나 신화가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낸 생동력있는 인간 승리의 기록인 것이다.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이 땅에 찬란한 철기문명을 열었던 우리 선조들의 탁월한 지혜는 철강못과 투구는 말할 것도 없이 농기구·무기류·대형 철제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등을 우리들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물려받은 역군들은 “寶

源은 有限·創意는 無限”이라는 신조를 안고 창조적 착상을 전제로 오늘의 포항제철의 高爐를 쌓아 올렸다. 철강은 국력이다 라는 기치 아래 제철소 1기 준공 이후 한편으로는 조업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설비확장공사를 병행하는 2중산업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신흥 철강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건설·자동차·조선 등 관련사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278만평의 광활한 부지 위에 웅장한 철강탑을 건립하여 선진철강 국가들로 하여금 경의 탄성을 일게한 것은 결코 우연한 기적이나 신화도 아니었다.

오로지 약탈로 인한 굶주림 속에서 겨우 헤아 난 허약한 국력을 강화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에서 분연히 뜻을 모은 국민과 지도자의 일치된 의지가 합성적 효과로 성공의 기틀을 잡은 것이다. 이른바 一致團結이라는 태두리에서 단 한 사람의 이단자도 없었다는 데에서 오늘의 Posco가 탄생한 것이다.

자금·기술·경험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해내야 한다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포항제철소건설의 대역사는 시작되었고 이뤄졌던 것이다. “툼멜 하루스”에서의 잊을 수 없는 애환·첫 출퇴(출선)의 감격, 13차례나 작업현장을 방문해서 건설요원들을 격려하여 확고한 국가관을 정립시켜 자신감을 지니게 한 지도자의 투철한 애국심의 결집이 오늘의 세계 4위의 철강국가로 그 위상을 높였다는 엄연한 현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태산같은 거대한 기구가 뇌전을 울리며 위험천 완음을 토하는 앞에서 아무도 스스로의 체신과 의도의 과장을 논하지 못하는 미세와 초라함을 느끼면서 친일파라는 어휘를 내뿔듯 마구 때벌리는 인물들은 그 당시 필했던 계층이었던가를 알고 싶기도 한 여운을 갖는다.

名士칼럼



강 영 훈

(前 국무총리)

歲月이 流水같이 北韓 共產軍이 蘇聯의 군사장비 지원과 작전계획 指導 등 支援을 받아 南侵을 敢行한지도 56주년 이 되었다.

새삼 대한민국 국립경찰이 국군과 더불어 낙동강 전선까지 一線에서 싸워 戰功을 세운 것을 비롯, 戰線이 압록강 線까지 전진할 때에는 후방에서 共產게릴라 掃蕩戰과 治安秩序 확립에 헌신한 護國警察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戰線에서 守護한 功勳이아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특히, 休戰 後의 북한 공산정권의 統一 戰線戰術指針 하에 南韓 治安의 부단한 破壞工作에 노출된 남한사회 법질서

自由 大韓 守護해온 警察의 功勳 至大

- 「6.25 南侵 56周年」 맞는 시점에서

國家安保에 대한 警察人들의 사명 더욱 莫重 -

유지를 위한 국립경찰의 부단한 사명관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근대사회의 他國家 警察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 民族이 처한 分斷國家로서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와 같은 社會現實 속에서 대한민국 국립경찰의 국내 治安問題는 대한민국의 산업화과정에 따른 政經變遷에 의한 비리가 사회일반에 惡影響을 끼쳐 일반시민의 불만을 조장하게 된 남한사회가 북한공산당의 대남 心理戰場이 되어 음에 따라, 대한민국 경찰의 임무가 타국가 경찰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過重한 性格을 띠게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韓國 警察 歷史上 侵略軍과의 正規戰鬪에 參戰하여 武勳을 세웠을 뿐 아니라 戰後에는 北韓 共產政權의 對南心理戰에서 政治와 軍事의 구분이 不明確한 상황에서, 국내 治安重任을 훌륭하게 마치

고 경찰관직을 떠난 120만 警友들이 現職將領의 경험을 살려, 국가의 치안질서 확립에 率일이 없는 현직경찰관을 후원 격려하며, 국가치안의 基盤인 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奉仕活動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大韓民國在鄉警友會 회원 여러분의 爲國忠情에 敬意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바야흐로, 共產陣營이 瓦解되고 공산주의 宗主國이던 소련이 解體되어 러시아 민주연방으로 改編되며, 동구지역 공산국가가 민주화되어 가는 大勢 속에 중국 共產黨마저 시장기능 존중 社會主義 旗幟를 높이 들고 2002년 제 16차 黨大會에서 江澤民 黨 主席이 공산당의 농민, 노동자, 기업가로 3자 대표 이론을 발표하는 등 현실적으로 공산진영의 붕괴와 더불어, 韓國戰爭 이후 政治,經濟體制競爭에서 국제사회의 대표주자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의 우월성이

증명되었다.

반면 北韓政權은 共產主義 政治의 실패로 1998년 改憲에서 공산당 中心이 아닌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國防委員長 獨裁體制를 공포하였다.

2002년에는 국가 改革經濟의 실패를 자인하고, 근대 중국의 사회민주주의 정치,경제정책을 참고로 하기 위해 감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시찰 여행소식까지 접하게 되었다.

과연 북한 정치,경제체제가 어느 방향으로 조정될 것인가는 속단을 불허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이 곤란한 內政과 外交에 처할수록 民族自足, 外勢排擊을 주장하는 對南 心理戰을 강화하여 남한사회 機關에 열중할 것이 예측되는 현실에서 조국안보와 국내 치안질서 확립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國立警察과 大韓民國 在鄉警友들의 사명은 더욱 重大하다 할 것이다.

안되고 일시 물려서 지나고 있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조직내부의 분열상을 사회 원로급에서 지나오신 인생경험으로 방향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무연중에 글로서나 아름다운 미소로서 하신다면 후진을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 가리라.

원로란 말뜻은 지난날 관직이나 나이·지식·덕망이 높고 나라에 공로가 많았던 사람이거나 어떤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풍부한 사람을 일컫는다.

5.31 지방 선거 이후 현재의 양극화 현상, 사회 분열상을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지 더욱더 깊어진 감정의 골, 당선 된자의 아픔은 여전하고, 타호보를 지지하다가 낙선한 유권자는 좌충우돌을 연재까지 간직하고 가야 할 것인지를 원로님들이 가교역할로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유권자에 대해 감성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하지 말고 훈계하여야 한다.

원로님들은 바른일을 하고 있는 젊은 후배들을 아낌없이 뒤에서 지원해 준경의 덕목으로 자랑스럽게 이름이 빛나게 된다.

분열은 대화를 어렵게 하고 대화의 단절은 분열을 깊게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말하는 사람의 열정, 말의 내용이나 배경 청중의 반응까지 종합해서 평가하려는 통합적 사고관이 모두에게 소중하다. 생각해 본다.

상대방의 얘기가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두주먹을 불끈 쥐기 보다는 두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나도 아픔을 갖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상처주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서로가 잘못된 어제는 이미 지나 갔으며, 다가 올 내일은 미지의 세계로서 나와의 운명적 만남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만 오늘이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길이 사회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길이기때, 그 급보다 더 귀한 인생의 경험들을 국가를 위해 청춘을 다 바치셨는데 아까울 것이 무엇 있으실까?

진주만 기습과 도쿄공습 교훈

—— 이 영 조 (前 총경, 해경경우회 이사)



태평양전쟁에서 일본해군은 계속하여 승진보를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2년 4월 8일 미육군항공군의 두리틀 중령이 이끄는 16대의 경폭격기에 의한 도쿄공습은 일본 해군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이 공습은 결과적으로 태평양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도쿄공습계획의 배경을 살펴보면 1942년초 미해군의 김제독과 그 참모들은 후회만 거듭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사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 중이었다. 그런데 참모 중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폭격하여 계속된 승리에 고무 되어있는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자”라고 제안함으로써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500마일 밖에 까지도 경계망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곧 도쿄공습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윽고 완성된 계획서에 의하면 폭격에는

미육군 항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경폭격기인 B-25B기를 사용하여 고속항모 기동부대가 일본본토 가까운 해역까지 이들을 싣고 가 일본군 초계권 밖에서 이들을 발진시키고 기동부대는 즉각 회항하며, 폭격부대는 공습을 마치고 동맹국인 중국의 비행장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6대의 항공기를 이끌던 두리틀 중령은 4월 18일 공습을 감행하였다. 일본해군은 제차 공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뿔뿔이 쫓기듯이 방어선 확대계획을 세웠고 이윽고 결정적인 패배의 장소인 미드웨이섬 해역으로 출격을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태평양전쟁의 흐름이 바뀌고 일본은 패전으로 끝이 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 있다면 전쟁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상대를 해치면 반드시 복수를 당하고,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다.

여기서 깨달음의 실체는 전쟁보다 평화, 복수보다는 사랑을, 패배(굴복) 보다는 소망으로 방향을 인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이다. 유가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란 요순시대처럼 정책의 역할을 국민이 못느끼고 태평을 누린 것이다. 후진국일수록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시킨다. 한국의 방송이나 신문의 20-30%는 정치문제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5위안에 드는 스웨덴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상의 이름을 모르는 국민이 51%였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모든 면에서 세계 4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元老님들의 참모습!

—— 최 인 철 (강원 경우회장)



극심화 되어가고 있어 그 체제를 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격정스러운 것은 “사회적 분열”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지하려는 세력과 그 반대의 세력이 반감으로 대립하고 있어도 문제의 핵심은 이를 줄이거나 아물게 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구조속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나 대화의 단절이 전혀 없는 곳이 있겠는가. 다만, 그 골이 깊고 얇은 차이만 있을 것이고 남보기 부끄러우나 외부에 표출되고

SYS (주)씨스팜 www.syseshop.com

관절엔 역시 리프리놀[®]!!관절기능개선에 도움을 원하신다면 리프리놀[®]로 바꾸세요.

관절에 대한 기능성을

- 국내 최초로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제품
- 인체시험을 통한 기능성 확인

국내 7개 대학병원(다기관)에서 관절이 불편한 사람 54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인체시험을 실시한 결과 관절기능개선 확인되었습니다 (open study). [출처: 최신의학 2002년 2월호]

*위 임상결과는 관절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홍콩대학 퀸메리병원에서 관절이 불편한 사람 8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인체시험을 실시 한 결과 위약대조군에 비해 리프리놀 섭취군에서 관절기능개선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약대조군 이중맹검인체시험) [출처: Progress in Nutrition VOL.6, N.1, 17-31, 2004]

*위 임상결과는 관절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
제2005년 7호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신분.

관절이 불편하여 기능개선 및 보호를 원하시는분.

관절 사용이 많으신분.

관절건강이 염려되는분.

하루4알 섭취로

관절 건강관리를 손쉽게

리프리놀은 다른 약물이나 식품과 같이 드셔도 안전합니다.

문의 02-850-2525